

# 제10회 밀양아랑제 성인병 예방하는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

주최: 밀양양돈협회 후원: 밀양축협, 부경양돈조합, 밀양산업대학교, 퓨리나사료



## 경남의 대표축제인 밀양아랑제를 통한 돼지고기 소비홍보 "밀양 돼지고기 맛보셨나쇼"

### 밀·양·지·부

최종관 지부장은 비타민과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진 돼지고기는 카드뮴 등 중금속 해독효과는 물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주고 리놀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에 탁월한 고영양식품이라는 것을 알려 그동안 일반인들의 잘못된 오해를 푸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취재/조진현

**밀** 양지부는 1980년 초대 이규석 지부장에서부터 현 최종관 지부장까지 20여년을 이어온 오랜 전통의 지부이며, 40여명의 중앙회 회원을 가진 규모가 작지 않은 지부이다. 현재 임원으로는 부지부장을 비롯 총무, 감사, 운영위원이 있으며, 지부장의 다부진 의욕과 부지부장을 위시한 임원들의 힘찬 도움에 어느 지부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성공리에 이루어내고 있는 지부이다.

밀양은 지역적 특성상 사방이 산에 둘러싸인 곳에다가 산과 물이 깨끗하여 질병의 발생이 적었으며, 양돈장들이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지 않아 질병의 확산과 전파가 어려운 잇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육가공공장이 많은 김해와 가까워 출하가 유리하고, 지역적으로 돈가의 시세가 좋아 양돈여건이 좋은 편이다. 주로 규격돈을 생산하며, 대성산업과 우광양돈조합 등지에 출하를 하고 있다.

밀양은 김해 등지의 도시화에 따른 양돈의 위축으로 근래 2~3년에 걸쳐 급속한 두수의 증가와 전업화가 이루어졌으며, 깨끗한 산과 물이 있는 관광지역의 특성상 분뇨를 모아 바다에 버리는 해양투기가 전문 허가업체(동광기업, 대한환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비용은 톤당 2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 밀양아랑제 행사 때 성황리에 돼지고기 및 가공품 시식회 열어

지부의 가장 큰 활동은 소비·홍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지역의 가장 큰 축제의 하나인 밀양아랑제 때 중앙회의 도움과 밀양산업대학교 축산학과의 후원으로 밀양 강변강터에서 7백만원 정도의 많은 자금을 들여 돼지고기 및 가공품 시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관광객·대중이 운집하는 밀양아랑제는 경남의 대표 향토축제로서 운동육 규수의 정절을 지



▲시식회 한쪽 옆에서 통돼지가 구워지고 있다.

키려는 죽음, 사명대사의 충절, 3대정승인 정필재, 김중직 등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지난해 제40회에 이르르고 있다. 5월 2일부터 나흘동안 계속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속에 식생활개선, 돼지고기 인식전환 및 양돈인의 위상은 높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무료시식회때 돼지고기 20마리는 밀양지부에서 제공하고 햄, 소시지, 통돼지, 바베큐는 밀양산업대 축산학과에서 가공기술을, 시지부는 목살구이, 삼겹살구이 등을 제공해 산학협력으로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내놓았다.

밀양시지부 회원들이 직접 사육한 양질의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조리방법을 알리고 시민·관광객 2,000여명 이상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행사분위기 고조에도 한몫을 거들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이때 본회에서 제작한 리플렛 및 돼지요리책자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최종관 지부장은 비타민과 단백질의 보고로 알려진 돼지고기는 카드뮴 등 중금속 해독효과는 물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주고 리놀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에 탁월한 고영양식품이라는 것을 알려 그동안 일반인들의 잘못된 오해를 푸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지난 97년 7월 8일 월례회에서는 밀양

돼지고기의 영양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아직도 없을 때나 먹는 고기로 항상 쇠고기의 뒷전에 밀려나 있다. 특히 여자나 어린애들, 그리고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많다는 이유로 먹기를 꺼린다. 하지만 최근엔 지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에 들어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같은 양의 쇠고기를 먹을 때보다 다소나마 콜레스테롤 치를 저하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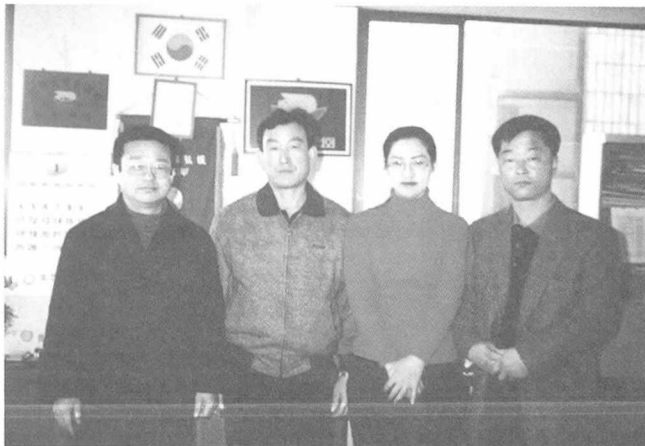


▲최종관 밀양지부장

산업대 축산학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매월 월례회를 통해 양돈농가들이 협회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익혀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밀양시 농촌지도소와 함께 지난 97년 9월 26일에는 다두사육 농업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의 육질 개선과 수출확대를 위해 수태지 연시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연시교육에는 가을철 가축사양 관리요령 교육에 이어 전문지도사로부터 거세 연시교육을 실시한 후 참여 농업인이 농가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한 거세기술을 익히기도 하였다.

지부는 사료, 기자재, 약품 등의 공동구입과 돼지의 공동출하 사업을 하지만 지부에서 따로이 수수료를 받지않고 회원들에게 이익을 모두 돌리고 있었고, 지부의 운영은 이런 잇점에 의해서 모여진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부사무실에서 배기호 부지부장, 강을순씨와 함께

“밀양에는 아직 다른 양돈모임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전업 양돈농가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우리 밀양지부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부장은 웃어보였다.

현재 밀양시내 돼지사육 농가는 184호에서 4만2천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 선별해서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

정부에서 해주는 무분별한 지원은 농가들을 빚더미에 앉혀 놓기만 한다. 최종관 지부장은 “자금을 받기위해 양돈을 하거나, 시설을 늘리는 사람에게 자금이 지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실행되는 정부자금 상환은 농가의 부담이 너무 큼니다. 3개월 연장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바꾸어 주어야 양돈이 살아나갈 수 있을것 입니다.”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이야기 했다. 또한 본회에서 만들고 있는 ‘주간정보’지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본 ‘월간양돈’지에 IMF를 이미 이겨낸 멕시코와 같은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주어, 그들의 양돈은 IMF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어떻게 대응하여, 어떻게 되었는지를 예로 실어주어 양돈가들의 IMF상황에서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양돈인의 입장에서 본지에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다. **義豚**